

# 아함부 어디에도 선문답 없어

## 중·장아함경(중)

글쓴이



돈연  
(두타초입)

중아함은 220여개의 경이 모여 이루어진 다. 잡아함이나 장아함에 비추어 경의 길이가 짧지도 길지도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잡아함 1362경이나 장아함 30경에 비해 220경이면 중간경도의 분량이다.

선정은 부처님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해진 수행방법이었기 때문에 아함경 전체가 선정을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아함에서는, 후대의 종파적 선종사상과는 달리 행위 그 자체로 선정을 가르쳤다. 방법의 제시가 아닌 직접적인 처방이었다.

중아함의 모든 경전도, 경전의 끝 구절이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비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실천하였다"로 끝난다. 이 받들어 실천(奉行)하는 것이야말로, 불교가 이해의 종교에서 한발 나아가 실천의 구체적 종교로 발전해 간 역사의 실점이다. 듣고 이해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고통을 즉석에서 해결해 했다. 이해하고 나서가 아니라 듣는 즉시 행동에 옮겨졌던 것이다. 이것이 아함부의 경전이 갖는 특색이다.

견성(見性), 대오(大悟)라든가 조사선, 여래선, 화두선 등의 추상적 개념에 익숙해진 사람은 팔경도나 팔미증유법 등이 훌륭한 선수행의 길잡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

"그 장자는 욕심이 적다.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 장자는 믿음이 있다. 여래에 대해 굳센 믿음을 지니고 있다. 그 장자는 스스로 부끄러움이 있다. 스스로 부끄러워할 할 때 부끄러워한다. 그 장자는 남부끄러움이 있다. 남부끄러워 해야 할 때 남부끄러워

## 경전 속의 禪 사상

5

## 중아함부 모든 경전 끝구절에 "비구들 부처님 말씀 받들어 실천"

한다. 그 장자는 정진을 한다. 그리하여 좋은 것들을 닦는다. 항상 스스로 한결같이 그러한 뜻을 일으킨다. 그 장자는 생각을 한다. 몸을 몸답게 관찰하고, 법을 법답게 깨닫도록 관찰한다. 그는 선정을 한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초월한 무소유의 깨끗함을 성취했다. 그 장자는 지혜가 있다. 지혜를 갈고 닦아 나고 없어지는 법을 관찰한다. 이처럼 성선한 슬기를 밝게 통달하여 흰기 분별하고 바르게 고통을 없앤다." (중아함 제 41 수장장경)

이 말씀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얘기지만 그 장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불교도가 아니다. 그는 이교도이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부처님은 그의 훌륭한 점을

알았고, 적당한 기회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것이다. 이 여덟 가지의 법을 팔미증유법(八末有法)이라고 부른다.

부처님의 관심사는 잘 정리된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었다. 그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위와 그 행위가 쌓아올리는 바른 삶의 태도를 관찰하고 대화했다. 아함의 말씀들은 그러한 기록의 모음이다.

왜 선정을 해야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여러 가지 쉽고 자세한 비유를 들고 있다.

"늦은 봄 모두가 밭에 씨뿌릴 때는 소를 놓아먹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씨뿌린 밭에 소가 들어가면 소치는 아이가 막대를 들고 못 들어가게 막는다. 왜냐하면 소치

되었다고 생각된다.

원시 지구에서 자연히 생성된 유기화합물이 목숨이 있는 생명체를 비약하기 위해서는 자기 복제를 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었다. 이 최초의 자기 복제기구를 추정하려면 현존하는 모든 생물이 지금도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전정보 번역의 메커니즘이 힌트가 된다. 즉 생체 내에서 유전정보는 DNA에 보존되고, 생체 반응은 모든 단백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공통의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여기서 큰 패러독스(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의 단백질 합성에는 DNA가 필요하지만, 그 DNA 복제는 단백질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 역설을 푸는 것은 원시 생명체에 있어서 DNA와 단백질의 어느 쪽이 먼저 출현했는 나 하는, 예컨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이 답으로서 현재 가장 유력 시되고 있는 것이 생명은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RNA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RNA 월드(world)가설'이다. 1980년대에 간단한 반응은 촉매할 수 있는 RNA가 생체 내에서 실제로 발견되어, 이 가설은 점점 진실성을 띄게 되었다.

는 아이는 반드시 꾸중을 듣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치는 아이는 막대를 들고 가서 못 들어가게 막는다." (중아함 제 589경: 소치는 비유)

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어려움에 대해, 마치 식량을 준비하듯, 정신적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떤것이 부처입니까?" "똥 막대기 니라"

"말하는 왜 서쪽에서 왔습니까?" "한입에 서쪽 감을 마셔라"

이러한 선문답 형식은 아함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느낌을 솔직히 표현했고, 듣는 이의 입장을 충분히 살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했다. 물론 경전이 다 일목요연하고 쉽게 설명된 것은 아니다. 부파의 특성대로 여기 보태고 저기 깨매어 저 도처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곳도 있다. 그러나 선정의 필요성과 효과를 긍정적으로 영향받기 위해서 아함의 중요성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수행의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다. 과정을 생각하고 성취한 결과는 결국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없는 법이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선수행이 갖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견성'이라는 결과에 너무 집착해 왔기 때문이다. 언어는 물론 침묵이든 가르침이든 결국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그러나 길에 표지판이 없다면 결국 누군가는 헤매이고 만다. 처음에는 하나 둘이 헤매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전체가 헤매고 만다.

소박한 모습으로 길 위에 자신을 던지고, 하나하나 의문을 해결하여 결국 큰 일을 이루어낸 부처님의 간결한 수행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중아함의 가르침들은 커다란 길잡이 그 자체이다.

##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4

3 피터 리

믿음의 4가지 항목, 지성·감정·사회·덕 등은 수행에 의해서 강화되고 증진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업과 윤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하찮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업과 윤회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적인 법칙도 있지만, 선한 행위는 보상받고 악한 행위는 벌을 받는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도덕적인 법칙이 있다.

업과 윤회는 바로 도덕적인 법칙에 따라 모든 원인은 죽음에 의해서 끝나지 않고 다른 생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법칙이 그렇듯 하든지 아니든지 자기 자신과 남들의 정생들을 기꺼워 내는 신통을 얻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신통이 없는 윤회가 사실임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윤회를 믿는다는 것은 대부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윤회의 믿음은 논리에 의해서 유지되기 보다는 위엄을 무릅쓰는 대담하고 용기있는 행동에 의해서 유지된다.

삶은 어디에서도 완전한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종사하는 군인은 그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며 영혼을 구제해 내어 종사하는 정신적인 사람은 그 자신의 영혼을 걸어야 한다.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종사하는 상인은 그의 재산을 걸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전혀 흔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들을 받아들이며 하며 우리의 대담함과 훌륭한 유머가 사라지지 않기를 희망해야 한다. 선택은 의심을 확대하는

## 믿음은 논리보다 행동으로 유지 지혜 뒷받침 안되면 맹신될 수도

나, 축소하는데 달려 있다. 가르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들 자신의 불안정과 진리와의 사이에서 오는 거리감을 비난한다.

만일 단 한달전의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찌 전생을 기억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의심들은 논쟁에 의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혜를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순화시킴으로써 의심이 풀리는 것이다.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지혜로 단련되지 않은 지나친 믿음은 단순한 맹신이 되기 쉽다. 믿음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 뿐이다.

믿음과 수행이 지나칠 때 지혜와 선정의 힘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마음챙김, 정념(正念)의 덕은 억제될 필요가 없다. 마음챙김은 어디에서나 강해야 한다.

믿음, 정진, 지혜는 우리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마음챙김은 우리의 마음이 흥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선정은 게으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음챙김은 우리의 마음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모든 반찬에는 소금이 조미료가 되고 모든 국가 행정은 대통령이 참가하듯이, 마음챙김은 어디에나 필요한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챙김은 어디에서나 유용하다"며 "왜냐하면 마음은 정념을 귀의처로 생각하고 정념은 마음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념이 없다면 믿음을 발휘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다"고 가르쳤다.

여타의 종교적인 수행과 철학적 체계에도 마음챙김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챙김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교 뿐이다. 불교와 여타의 모든 사교 체계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다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챙김'이다.

번역: 오종욱 기자(gobaoou@buddhopia.com)

## 과학산책

### 생명탄생의 시나리오 ①

#### ■ 화학진화설

지구의 나이는 46억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갓 태어난 지구는 운석의 충돌 에너지에 의하여 뜨겁게 녹은 마그마로 덮여 있었다. 그 후 마그마는 조금씩 식고 지각이 형성되어 갔다. 생명은 적어도 지각이 형성된 다음에 태어났다고 생각된다.

지구상에서의 생명의 기원은 적어도 38억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생명의 탄생은 지각이 형성된 43억년 이후 38억년 이전 사이로 볼 수 있다.

생명 탄생에 40억년 동안 굵기지 않고 지구상에서 생명작용이 유지되어 온 요인으로는 대사와 자기 복제 작용을 들 수 있다. 그들을 담당하는 유전 고분자 단백질과 핵산은 모든 생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원시 대기중이나 바닷속에서 우선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성된 과정, 다음에 이들 유기물이 고분자로 중합한 과정, 더

욱이 이들 고분자를 포함하는 막으로 된 외벽을 가진 소구(小球)가 형성된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은 화학 물질 수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화학진화'라 불리고 있다.

화학 진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컨대 RNA(리보핵산)와 DNA(디옥시리보핵산)가 생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폴리펩티드(polypeptide), 즉 단백질도 아마도 산이 이어짐으로써 생성되었다. 최근 RNA가 자기 복제만이 아니라 폴리펩티드의 합성 기능도 가

### 원시지구 유기물 생명형성 바탕 자기복제 하는 RNA서 진화시작

무기물 → 유기물 → 고분자 → 小球

다양한 시뮬레이션 실험이 실시되었다. 여러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 원시 지구상에서는 유기물이 생성되고, 그들이 바닷속으로 녹아들어 갔다고 생각되고 있다.

유기물이 녹아들었던 바다에서는 아데닌과 리보오스가 결합하여 뉴클레오시드(nucleoside)가 생성되었다. 다음으로 인산이 결합하여 뉴클레오티드(nucleotide)가 생성되고, 더 나아가 이들 뉴클레오티드가 이어져서 폴리뉴클레오티드,

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고, RNA 월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분자가 물 속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분자끼리 서로 만날 확률이 적지만, 막으로 둘러싸인 용액 속에서는 만날 일이 많아진다. 또 막의 구멍을 통하여 필요한 성분을 섭취하고 불필요한 성분을 배출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물질이 몇 번이고 만들어져다가는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작용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남아 생명체가

RNA 월드가 성립된 다음 무기적으로 합성되어 원시지구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단백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RNA가 나타나고, RNA와 단백질의 공생 시대(RNA-단백질 월드)를 맞이하였다. 마침내 RNA를 거꾸집(주형)으로 하여 DNA를 합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RNA는 촉매기능의 대부분을 보다 높은 활성의 단백질에, 유전 정보와 보존 능력을 보다 화학적으로 안정된 DNA에 넘겨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후 수십억년의 세월을 거쳐 유전 암호가 정비되고, 이 규칙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시스템이 성립하고, DNA에 유전 정보를 보존하는 현재의 생물 세계 즉 'DNA 월드'로 발전해 나갔을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 있는 화석의 하나로서 현재의 단백질 생합성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내 소과립인 리보솜(ribosome)을 들 수 있다. 리보솜은 단백질과 RNA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를 통하여 단백질 합성의 주요한 촉매 기능, 즉 펩티드 결합을 생성하는 작용은 RNA 성분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계속)

월간 <과학 Newton>서 발췌

##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사람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 1999년도 겨울 선 수련회

- ◆ 내용: 선(禪) 초심자의 실참실수(室參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8배, 삼귀의, 오계 수계 등 불지예법.
- ◆ 장소: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
- ◆ 인원: 선착순 50명
- ◆ 대상: 일반인, 직장인
- ◆ 수련비: 2만원

차수	기간	대상	회비
제3차	2월13일(토)~14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4차	2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5차	3월 6일(토)~ 7일(일)	길상사거사리회원	2만원
제6차	3월13일(토)~14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7차	3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 ◆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시: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2. 팩스 이용시: ①이름 ②생년월일, 성별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⑤직업 ⑥수련회 경험유무 ⑦수련회 동참 조건(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회원은행 계좌 301-22-02060, 예금주 <길상사>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수련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친지나 본인이 원할 경우 원하는 차수에 언제라도 다시 동참 할 수 있습니다.)

■ 자선봉사자 동참: 수련기간 중 불참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선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동 시간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양간 청소정리, 사무실 보조 및 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 레이키 (REIKI)법 전수

레이키(REIKI)법은 장구한 세월 기공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기치로능력, 생활 속에서의 기이응용력을 단시일내에 발휘하게 해주는 비법입니다.

레이키(REIKI)법은 개발자인 우스이 미카오선생으로부터 이어지는 계통적 인정증을 가지고 있는 유자격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受傳)를 받기만 하면 누구나 단시일내에 기치로능력, 기이응용력을 발휘하게 되는 자비(사랑)의 도구입니다.

근세 일본의 도동자 우스이 미카오선생에 의해서 발견되고 개발된 이 비법은 미국으로 전승된 후 급속하게 과학화, 대중화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세계의 의료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하여 착실하게 보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박희준)는 일본의 REIKI ONE 힐링협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神傳 레이키의 우에노선생, 오스트랄리아에의 팀 버든 선생, 영구계의 미키 트리스 선생에게서 일본 고유의 전통적 효도적 레이키법, 표준화된 서양식 레이키법, 그리고 1995년에 새로이 등장한 카누나 레이키법(정신면에 더욱 높은 치료효과를 가진)을 전수받고 온 레이키법 전문 지도자인 레이키마스터 & 티처입니다. 나는 지금 이와 같은 다채로운 전수능력과 교육능력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더욱 확실하게 레이키법을 전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 ● 레이키 전수의 소요일수

제 1단계2일, 제2+제3단계2일,특별임상응용단계2일  
■ 무료 재학습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레이키요법(기치로)의 주요 분야

레이키요법은 250가지 이상의 중요한 질병에 유효하게 작용하며 가벼운 질환들에 대하여는 즉효성의 효과도 발휘합니다. 시공을 초월해 원격치료를 할 수 있고 집단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 ● 레이키요법의 응용분야

생활의 광범위한 방면에 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 일본 'REIKI ONE 힐링 협회 한국연락소 -

## 뜻대로 사는 길 아·박·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 그렇다면 지금 아바타를 경험하세요!

- 아바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일주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바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바타 코스는 종교색이 없고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바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추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바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적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혜택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바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옵니다. 아바타의 이름으로..

- 아바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바타센터에서는 매일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바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하십시오. 언제나 최선을 보냅니다.

영축 아바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 (통도사 근처) 011)882-1149

## 심야전력기기

###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 심야전력기기간: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풍,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람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유,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 ▶ 심야전력기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보일러설치가 필요없고, 열손실이 낮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 심야전력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하므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심야전력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므로 미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문의전화 0343)468-7200(대)  
영남부: 0343)445-6090  
바로 전화 주십시오. FAX : 0343)445-3370